

미신, 징크스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미신, 징크스에 대한 생각

- _ 자신만의 징크스나 루틴, '없다'는 응답 높아
- _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미신, 징크스', 신경쓰고 있어
- _ 여자 20대 징크스 동의도 가장 높고, 남자 20대 가장 낮아
- _ 4060세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징크스 동의도 보여
- _ 보수층 징크스 동의도, 중도/진보층보다 높아

■ 인연, 운명 등에 대한 생각

- _ 우리 국민들은 인연, 행운/불운, 운명, '있다'고 생각
- _ '인연' 등 동의도, 남자 2030세대만 상대적으로 낮아
- _ 고학력 계층에서 '인연' 등 동의도 가장 높아

■ '정보'에 대한 생각

- _ 국민들, '정보 진실성'에 대해 매우 유보적
- _ 2030세대, 비슷한 수준으로 유보적 태도 강해
- _ 60대이상 유보적 태도, 모든 성/연령층에서 가장 강해
- _ 이념층, 비슷한 수준으로 유보적 태도 강해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0월 6일(금) ~ 10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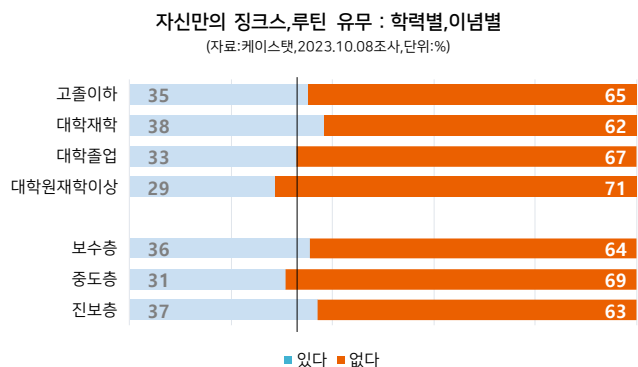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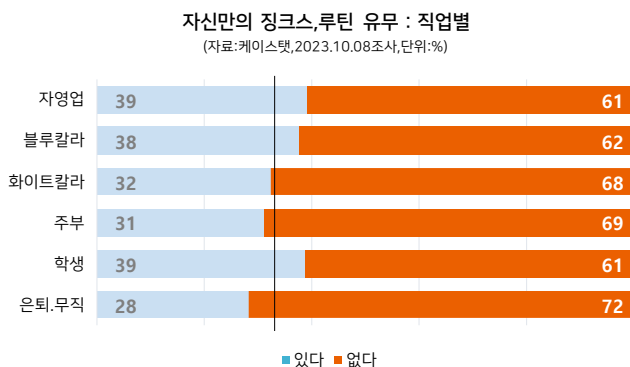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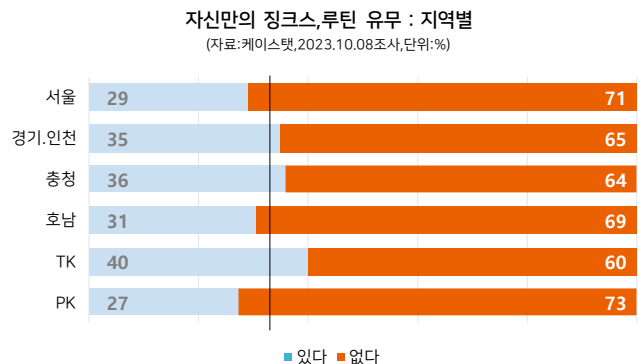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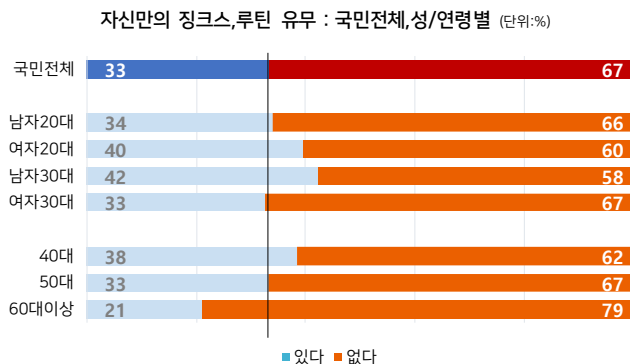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미신, 징크스에 대한 생각

□ 자신만의 징크스나 루틴, '없다'는 응답 높아

- 우리 국민 다수는 자신만의 징크스나 루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징크스·루틴이 '없다'는 응답이 67%로, '있다'는 응답 33%보다 월등히 높음
 - “선생님은 평소 자신만의 징크스나 ‘루틴’(무엇을 할 때, 의식적으로 동일한 순서를 정해 행동하는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60대이상 △서울, PK △은퇴·무직자 △대학원재학 이상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응답 기준 선임
-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여자 20대, 남자 30대 △T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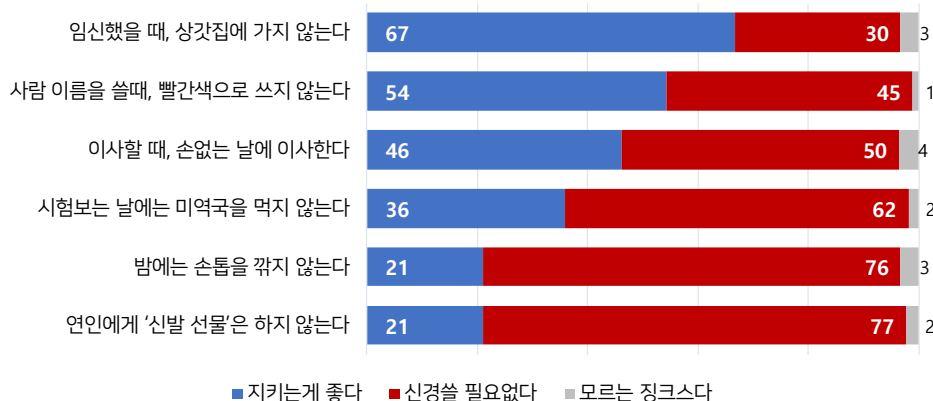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징크스가 있음
 - : 예를 들어 “내가 경기를 보면, 우리 팀이 진다” 같은 것이며, ‘승자의 저주’, ‘행운의 네잎 클로버’ 등도 징크스 예임
 - : 대부분의 징크스는 통계학적으로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운’을 멀리하고 ‘행운’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심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 ‘루틴’은 이러한 징크스 중 하나로, ‘무엇을 할 때, 의식적으로 동일한 순서를 정해 행동’하면 행운이 따른다는 것임
- ☑ 우리 국민들 중 개인적인 징크스나 루틴이 있는 비중은 33%이고, 다수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참고로 개인적인 징크스·루틴이 있는 사람들 중 70%는 그것이 ‘깨질 경우’, ‘불안하다’고 응답함

□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미신, 징크스', 신경쓰고 있어

- 우리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의 징크스·루틴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징크스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징크스 혹은 미신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지키는게 좋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다음은 우리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징크스 혹은 미신들입니다. 선생님은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임
- '지키는게 좋다' 응답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했을 때,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는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람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다'(54%), '이사할 때, 손없는 날에 이사한다'(46%) 순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시험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36%), '밤에는 손톱을 깎지 않는다'(21%), '연인에게 '신발 선물'을 하지 않는다'(21%) 순으로 응답함

미신, 징크스에 대한 생각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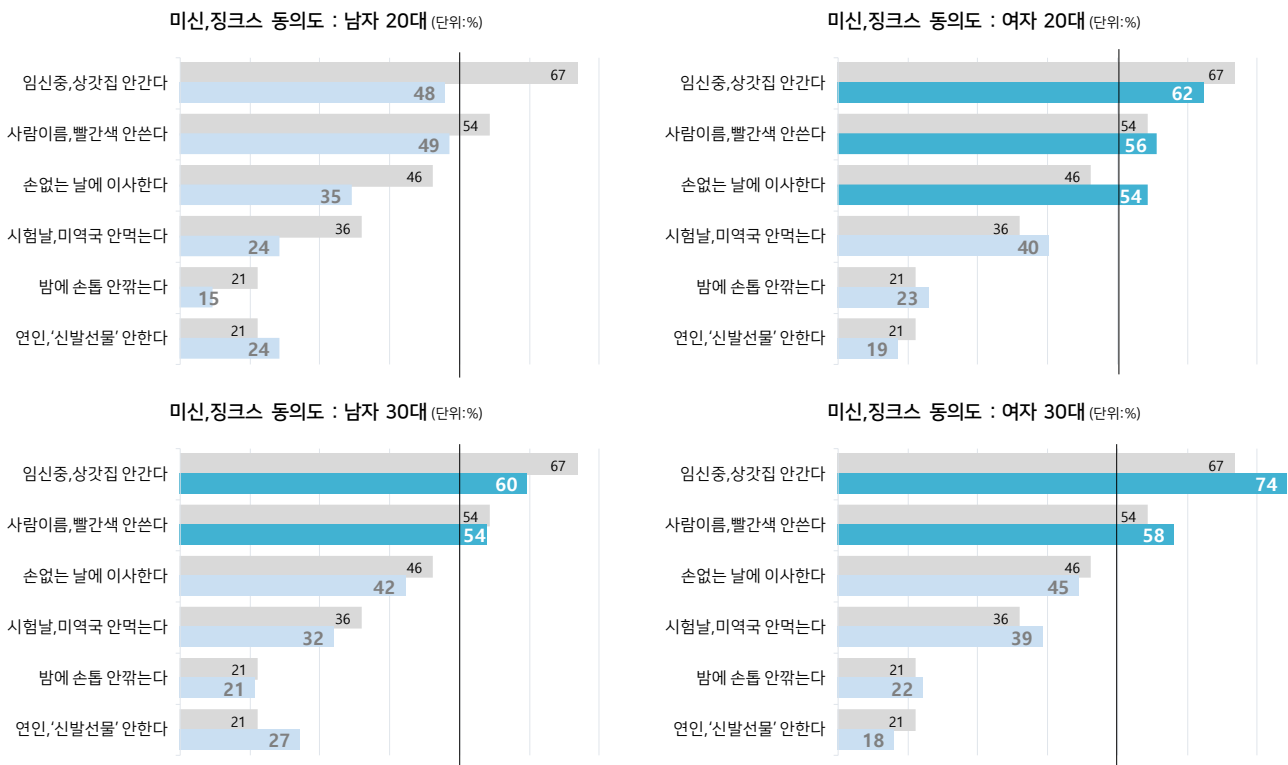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개인적 측면에서의 징크스·루틴은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징크스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물론 신경쓰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고, 징크스에 따라 다름
 - :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키는게 좋다'고 응답한 징크스는 '임신했을 때,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이고, 가장 신경을 안쓰는 징크스는 '연인에게 '신발 선물'을 하지 않는다'로 조사됨
 - : 그외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무수히 많은 징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크스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응답과 '신경쓸 필요없다'는 응답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됨
 - :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징크스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힘
- ☑ 한편, 질문을 던진 징크스에 대해 '모르는 징크스'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적은 것도 주목됨
 - : '모르는 징크스'라는 응답이 최대 4% 이하인데, 그만큼 각종 징크스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자 20대 징크스 동의도 가장 높고, 남자 20대 가장 낮아

- 각종 징크스에 대한 동의도(‘지키는게 좋다’ 응답률)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전체와 비슷한 동의도를 보임
- 구체적으로 남녀 30대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와 비슷한 동의도를 기록한 가운데, 여자 20대는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남자 20대는 낮은 동의도를 나타냄
 - 동의도가 50%를 넘은 징크스 수를 보면, 여자 20대는 3개이고 남녀 30대는 공히 2개임
 - 이에 비해 남자 20대는 모든 징크스가 동의도 50% 미만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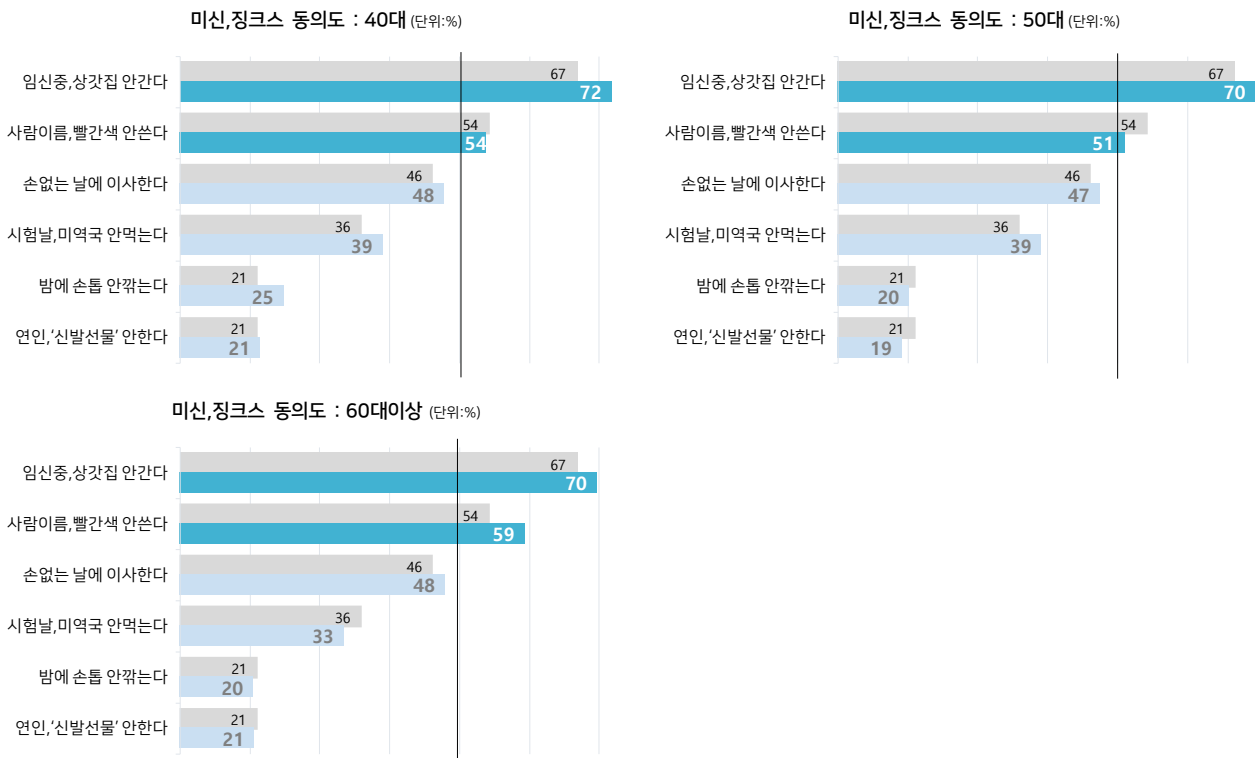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미신 또는 징크스의 영향력은 나이를 떠나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징크스는 오래 전에 형성된 징크스들임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음
- ☑ 또한 인지를 넘어 ‘지키는 좋다’는 동의도가 높고, 특히 여자 20대의 동의도는 모든 성/연령에 걸쳐 가장 높음
 - : 남자 20대는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지만, 일부 징크스 동의도가 50%에 근접한 것을 볼 때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대별 의식 차이가 뚜렷하지만, 징크스 측면은 세대별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모습임
 - : 각종 사회의식 조사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생각차가 크고, 40대는 그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음
 - : 하지만 징크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4060세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징크스 동의도 보여

- 4060세대의 각종 징크스에 대한 동의도(‘지키는게 좋다’ 응답률)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동의도가 50%를 넘은 징크스 수는 모두 2개이고, 그 수준도 비슷함
 - ‘임신 중, 상갓집 안간다’ 동의도 : 40대 72%, 50대 70%, 60대이상 70%
 - ‘사람 이름, 빨간색 안쓴다’ 동의도 : 40대 54%, 50대 51%, 60대이상 59%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동의도가 50%를 넘지 않은 징크스 역시 그 동의도 수치가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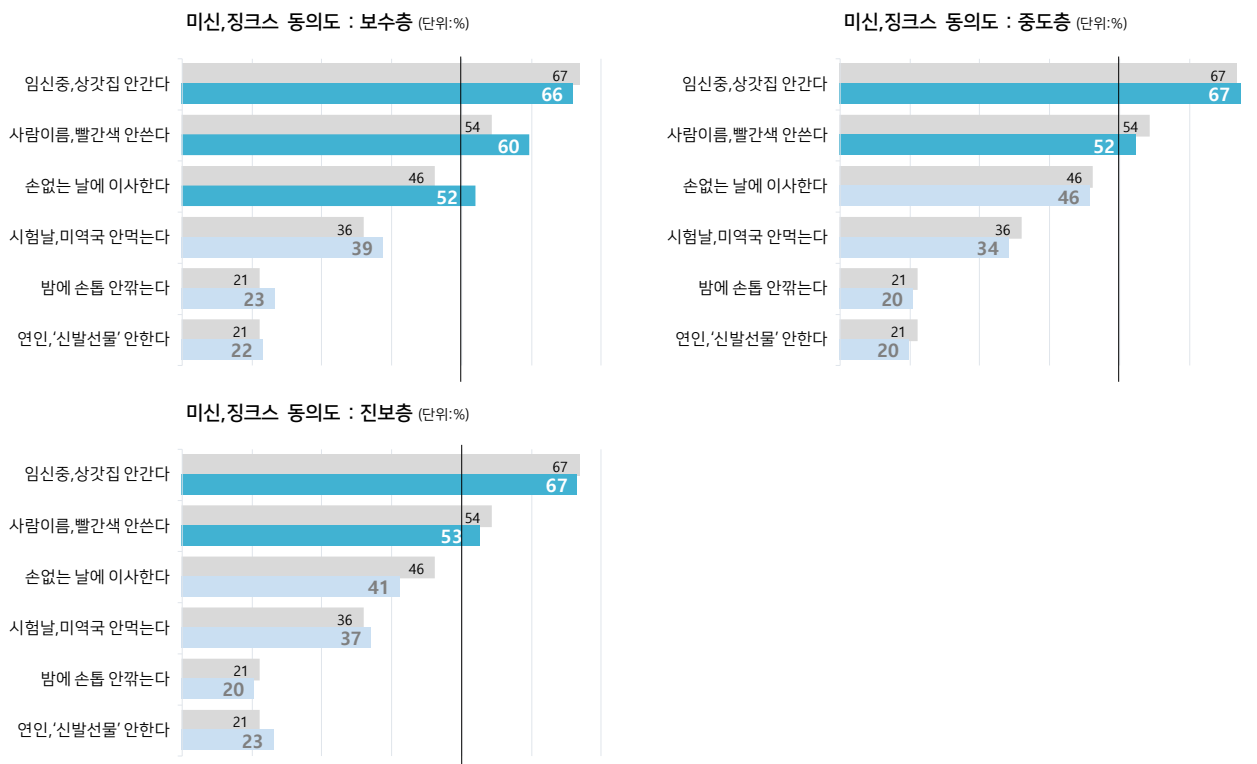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징크스에 대한 동의도를 보면, 성/연령별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음
 - : 거의 모든 성/연령에서 ‘임신 중 상갓집 안간다’와 ‘사람 이름, 빨간색 안쓴다’ 동의도가 50%를 넘고, 그 수치도 유사함
 - : 또한 동의도가 50%를 넘지 못한 다른 징크스들에 대한 수치 역시 비슷함
- ☑ 차이점은 대부분의 징크스에 대해 여자 20대가 ‘더 많이’ 동의하고, 남자 20대가 ‘더 조금’ 동의하는 정도임
 - : 물론 이점에 주목할 경우 남녀 20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 20대 내에서의 남녀 차이라는 점에서 세대차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보수층 징크스 동의도, 중도/진보층보다 높아

- 각종 징크스에 대한 동의도(‘지키는게 좋다’ 응답률)를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이 중도층과 진보층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보수층의 동의도가 50%를 넘는 징크스 수는 3개이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2개임
 - 보수층 동의도 50% 넘는 징크스 : ‘임신 중, 상갓집 안간다’, ‘사람 이름, 빨간색 안쓴다’, ‘손없는 날에 이사한다’
 - 중도층과 진보층 동의도 50% 넘는 징크스 : ‘임신 중, 상갓집 안간다’, ‘사람 이름, 빨간색 안쓴다’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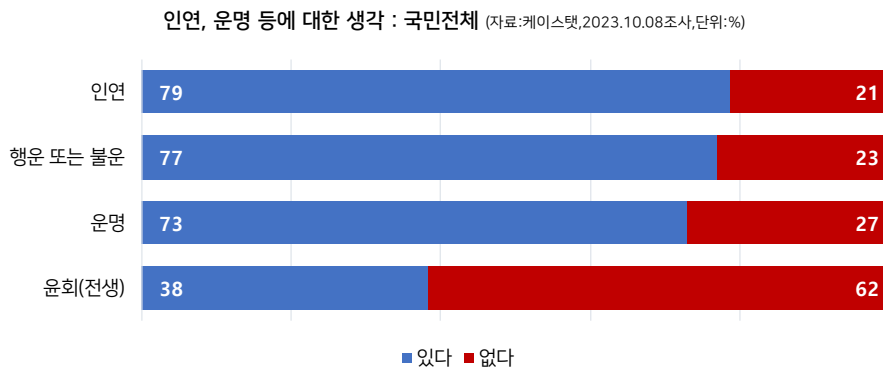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보수층은 중도/진보층보다 징크스에 대한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 50%가 넘는 징크스 수도 3개로 많고, 그외 징크스 동의도 역시 국민 전체보다 높음
 - : 이에 비해 중도층은 국민전체와 거의 비슷하고, 진보층은 소폭 낮음
- ☑ 이는 보수층이 우리사회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에 좀 더 친근한 결과로 분석됨
 - : 보수층은 말 그대로 기존 사회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욕구가 강함
- ☑ 이 지점에서 앞서 성/연령별 분석에서 여자 20대의 동의도가 가장 높은 점은 모순적임
 - : 여자 20대는 진보층 특성이 강한데도 징크스 동의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임
 - : 즉, 여자 20대의 높은 징크스 동의도는 이념성향과 무관한 것으로, 사회불안감이 높은 여자 20대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징크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임

인연, 운명 등에 대한 생각

우리 국민들은 인연, 행운/불운, 운명, '있다'고 생각

- 국민들에게 '인연', '행운 또는 불운', '운명', '윤회(전생)'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인연'(79%)이고, 다음은 '행운 또는 불운'(77%), '운명'(73%) 순으로 조사됨
- 다만, '윤회(전생)'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보다 '없다'(6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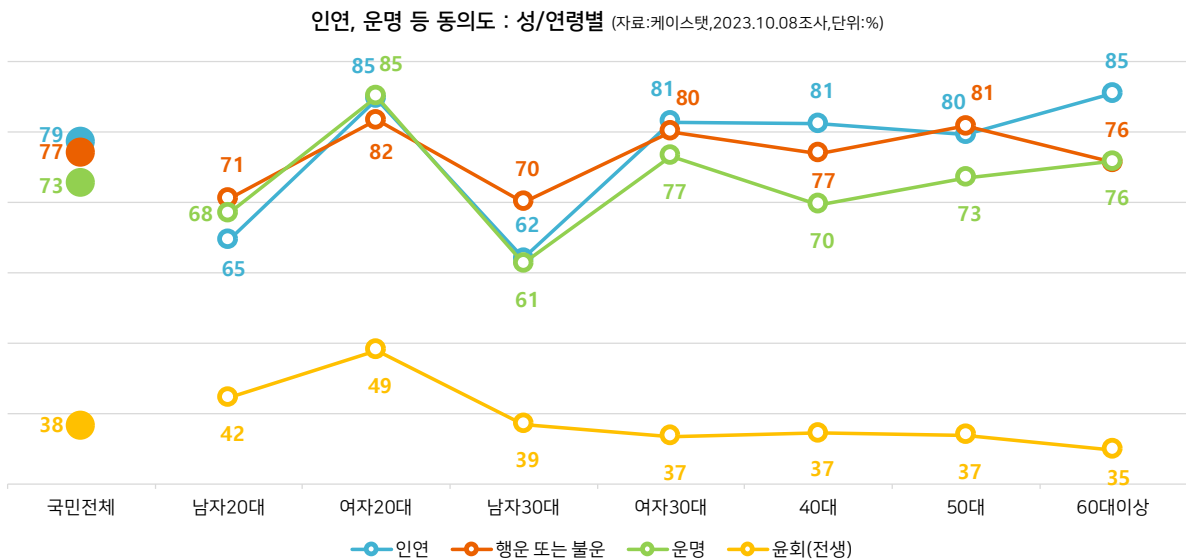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징크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인연'과 같이 뚜렷이 알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 : '인연', '행운 또는 불운', '운명'이 있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요인들이지만 '있다'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임
- ☑ 이에 대해 과학의 잣대를 적용해 '신비주의' 또는 '미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학의 잣대를 적용해 '지금엔 모르지만 앞으로 밝혀질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성취를 떠나, 국민들이 '인연', '행운 또는 불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임
 - : 또한 '있다'는 응답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로 읽힘
 - : 이에 과학의 잣대를 말하기보다 국민이 생각하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고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임
-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분히 '알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연말연초에 '토정비결'을 보거나 '사주'와 '관상', '점'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 가능함
 - : 다만, 이러한 생각이 '신비주의'로 경도되어 '개인의 노력'보다 '운' 또는 '운명'을 중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임

□ '인연' 등 동의도, 남자 2030세대만 상대적으로 낮아

- '인연', '운명' 등에 대한 동의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30세대만 상대적으로 낮고 그 외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여자 2030세대와 4060세대의 동의도는 비슷하게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여자 20대는 모든 요인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나타냄
 - 요인별 동의도를 보면 '인연' 85%, '행운 또는 불운' 82%, '운명' 85% 등임
- 한편, 국민 전체적으로 '있다'는 동의도가 38%에 그친 '윤회(전생)'만 놓고 보면 남녀 20대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연령층의 동의도는 낮음
 - '윤회(전생)' 동의도에서도 여자 20대는 49%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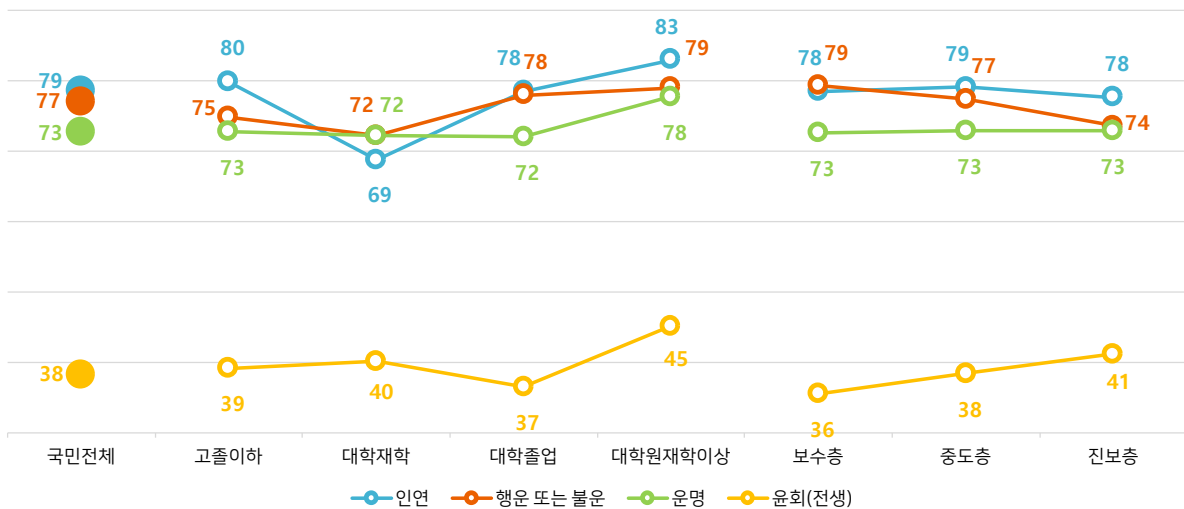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연', '행운 또는 불운', '운명'은 모든 성/연령에 걸쳐 높은 동의도를 기록, 세대를 뛰어넘어 인정되고 있음
 - : 여자 20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고, 여자 30대와 4060세대의 동의도 수준 역시 비슷함
 - : 남자 2030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지만, 절대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임
- ☑ 한편, 국민 전체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윤회(전생)'에 대해 남녀 20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많이 회자되는 '이생망(이번 생애는 망했다)'에 '윤회'가 자리잡고 있는 영향으로 보임
 - : 즉, 20대들은 '이번 생애는 망했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면서 '윤회'에 관심을 갖는 것임
 -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뚜렷한 사회현실을 직면한 20대들은, '이생망'을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임
 - : 앞서 '인연' 또는 '운명'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개인의 노력'보다 '운' 또는 '운명'을 중시하는 '신비주의'로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사회 현실이 이러한 '신비주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임

□ 고학력 계층에서 '인연' 등 동의도 가장 높아

- '인연', '운명' 등에 대한 동의도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재학 계층만 상대적으로 낮고 그 외 모든 학력층에서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특히 대학원재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의 동의도가 가장 높음
 - 요인별 동의도를 보면 '인연' 83%, '행운 또는 불운' 79%, '운명' 78% 등임
- 국민 전체적으로 '있다'는 동의도가 낮은 '윤회(전생)'에 대해서도 대학원재학 이상 고학력층은 45%의 동의도를 기록함
- 이념별로 살펴보면, 이념층 간에 별다른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의 동의도를 보임
 - '인연', '행운 또는 불운', '운명' 모두 국민전체 수준과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진보층의 경우 '윤회(전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인연, 운명 등 동의도 : 학력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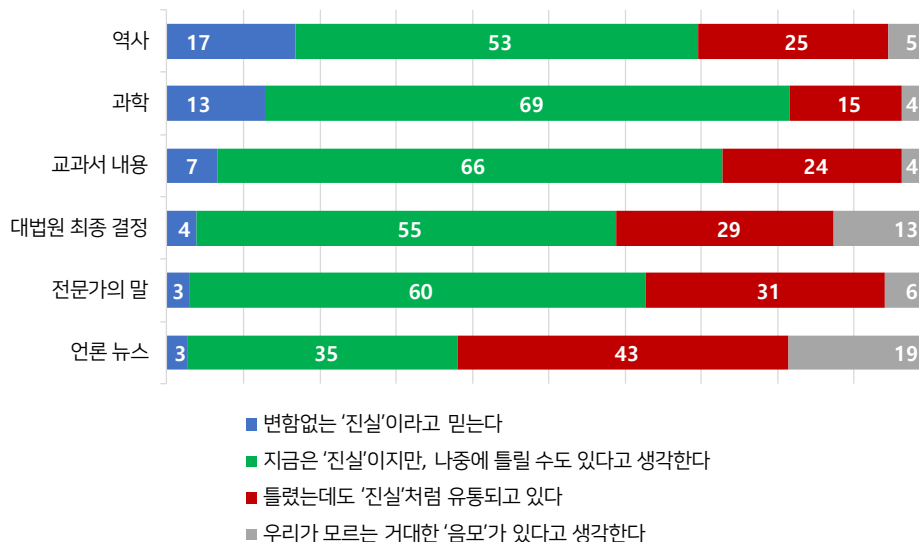
- ☑ 대학원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이 모든 요인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나타낸 점이 주목됨
 - : 통상 고학력층은 과학적·객관적 사고를 중시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들 고학력층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 운명 등이 '있다'고 생각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있다'는 응답을 '신비주의'로 비판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하는 이유임
- ☑ 이념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진보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윤회(전생)' 동의도가 눈에 띄음
 - : 진보층은 이성적·논리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층보다 '윤회'에 대한 동의도가 높음
 - : 이는 진보층을 구성하는 계층적 특징(윤회에 긍정적인 20대 여자, 고학력층)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 '정보'에 대한 생각

□ 국민들, '정보 진실성'에 대해 매우 유보적

- 우리 국민들은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정보들의 '진실성'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
- 국민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시하고 '진실성'을 질문한 결과, '지금은 '진실'이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역사 53%, 과학 69%, 교과서 내용 66%, 대법원 최종 결정 55%, 전문가의 말 60% 등임
- '언론 뉴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틀렸는데도 '진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정보'에 대한 생각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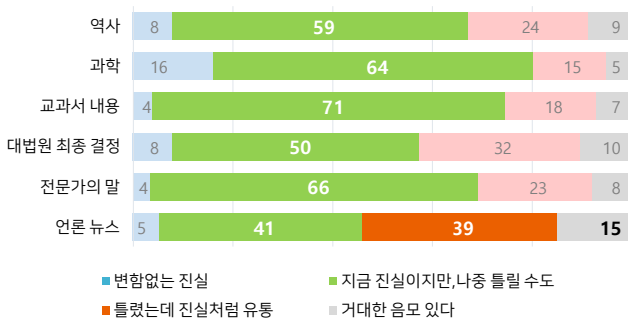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 즉, '지금은 '진실'이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음
- ☑ 이러한 유보적 태도가 '진실'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 : '역사'와 '과학'의 경우 연구와 새로운 사실 발견 등으로 '진실'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반영해 '교과서 내용'과 '전문가의 말'이 달라질 수 있음
 - :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인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국민들이 우리사회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큰 문제임
- ☑ 한편, '언론 뉴스'는 유보적인 태도를 넘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냄
 - : 즉, '틀렸는데도 '진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아,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 : 이는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분석됨
 - : 참고로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25%에 그치고, 불신도가 75%임(케이스탯 8월 사회지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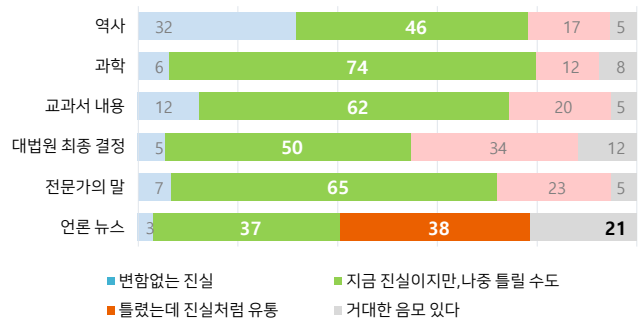
□ 2030세대, 비슷한 수준으로 유보적 태도 강해

- ‘정보 진실성’에 대한 태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30세대는 큰 차이 없이 유보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2030세대는 모든 ‘정보’에 대해 ‘지금 진실이지만, 나중 틀릴 수도’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수준 역시 비슷함
- 2030세대의 차이는 ‘언론 뉴스’에 대한 태도로, 20대는 유보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비해 30대는 비판적 태도가 좀 더 우세함
- 한편,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은 주로 ‘대법원 최종 결정’과 ‘언론 뉴스’에 형성되어 있음
 - 20대는 ‘언론 뉴스’에 대한 ‘음모론’이 남자 15%, 여자 21%로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의 ‘언론 뉴스’ ‘음모론’은 남자 21%, 여자 27%이고,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음모론’도 남자 15%, 여자 2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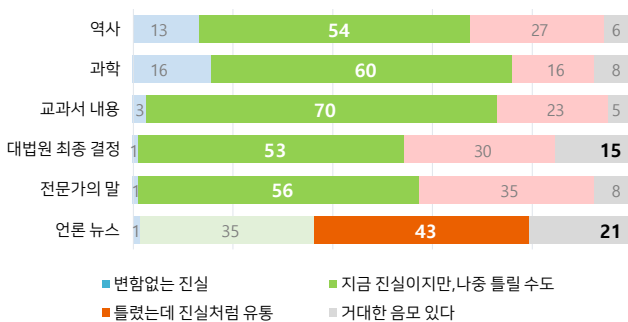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생각 : 남자 2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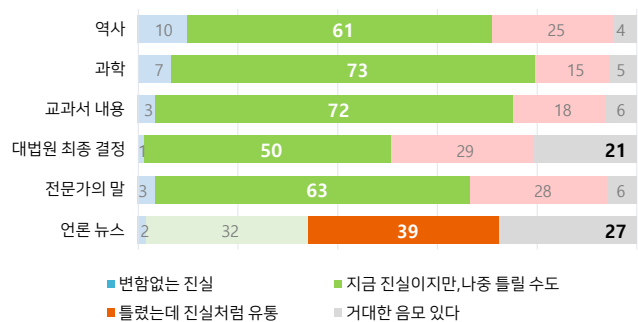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생각 : 여자 20대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남자 30대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여자 3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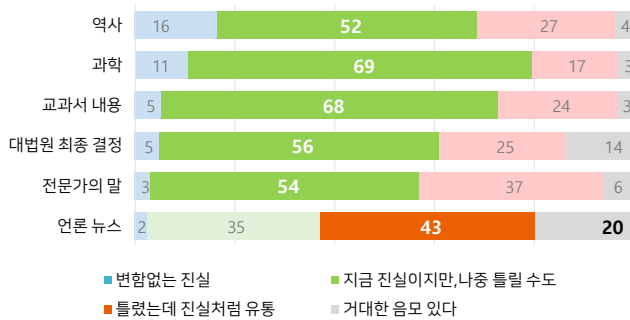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의 각종 정보에 대해 2030세대들은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모든 정보에 대해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응답은 낮고, ‘지금 진실이지만, 나중 틀릴 수도’ 응답 비중이 높음
 - : 앞서 문제로 지적한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해서도 유보적 응답 비중이 높고, 30대의 경우 ‘음모론’도 상당부분 형성될 정도로 심각함
- ☑ 한편, ‘언론 뉴스’에 대해서도 2030세대는 유보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가 강함
 - : ‘언론 뉴스’가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응답 비중은 최고 5% 이하에 그칠 정도로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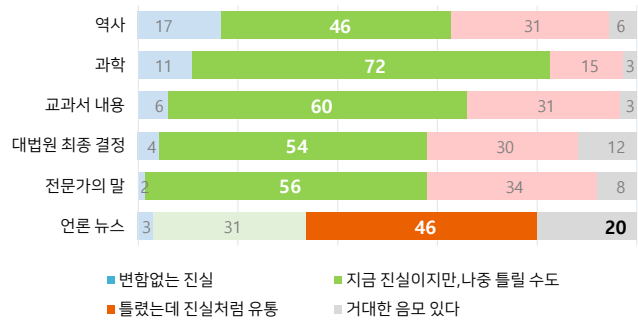
□ 60대이상 유보적 태도, 모든 성/연령층에서 가장 강해

- 4060세대의 '정보 진실성'을 살펴보면 4060세대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60대이상의 태도가 가장 강함
 -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 앞서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지금 진실이지만, 나중 틀릴 수도' 응답 비중이 비슷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음
- '언론 뉴스'에 대해서는 4060세대 모두 '틀렸는데 진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한편,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은 4050세대의 '언론 뉴스'에 형성되어 있음
 - '언론 뉴스'에 대한 '음모론' 응답 비중은 40대와 50대 공히 2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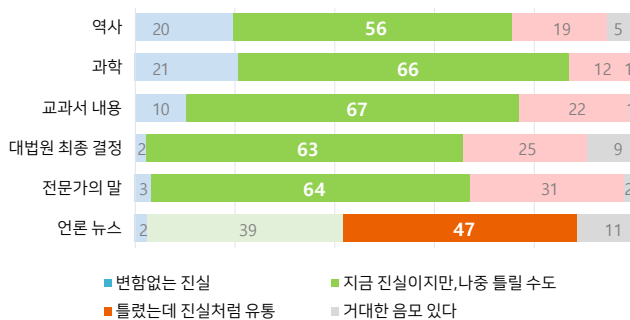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생각 : 40대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50대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60대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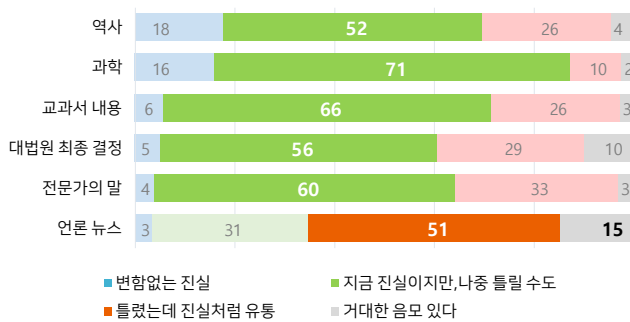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에 이어 4060세대들 역시 우리사회의 각종 정보에 대해 매우 유보적임
 - : 특히 60대이상의 유보적 태도가 가장 강한테, 이들은 한편으로 '변함없는 진실' 응답 비중도 가장 높음
 - : 4060세대 역시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해 유보적 응답 비중이 높아, 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 한편, 4060세대는 '언론 뉴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비슷함
 - : '언론 뉴스'가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응답 비중은 최고 3% 이하에 그칠 정도로 부정적이고, 4050세대의 경우 '음모론'이 20% 수준에 형성될 정도로 진실성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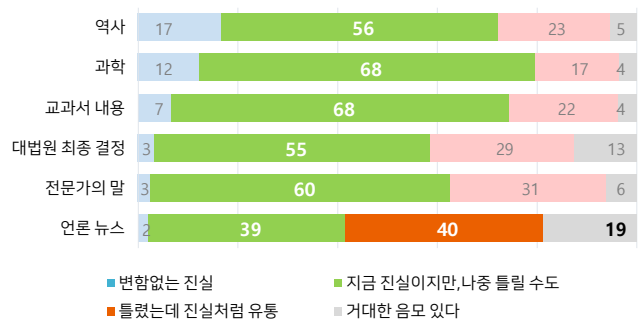
□ 이념층, 비슷한 수준으로 유보적 태도 강해

- ‘정보 진실성’을 이념별로 살펴보면, 모든 이념층이 강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비슷함
 -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보수, 중도, 진보층 모두 ‘지금 진실이지만, 나중 틀릴 수도’ 응답 비중이 높음
- 예외적으로 ‘언론 뉴스’의 경우, 보수층과 진보층은 ‘틀렸는데 진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높고, 중도층은 비판적 응답과 함께 유보적 응답 비중이 비슷함
- 한편,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은 모든 이념층이 ‘언론 뉴스’에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보수층은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형성되어 있음
 - ‘언론 뉴스’에 대한 ‘음모론’ 응답 비중 : 보수층 15% / 중도층 19% / 진보층 22%
 -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음모론’ 응답 비중 : 보수층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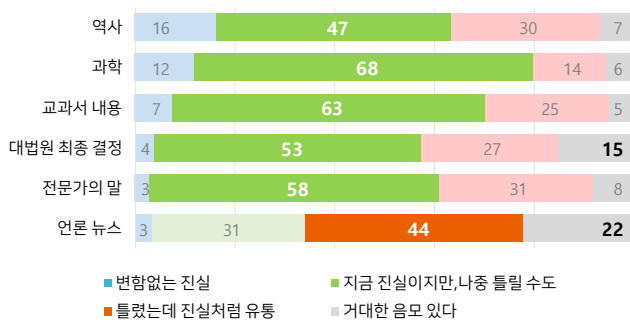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생각 : 보수층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중도층 (단위:%)



‘정보’에 대한 생각 : 진보층 (단위:%)



Kstat Point

- ☑️ 우리사회 각종 정보에 대해 모든 이념층이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특히 보수층이 강함
 - :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유보적 응답 비중 역시 모든 이념층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음
 - : 여기에 진보층의 경우 ‘음모론’ 응답 비중도 15%로, 대법원 판결의 진실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음
- ☑️ 한편, ‘언론 뉴스’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이념층은 보수층으로, 이들은 ‘틀렸는데 진실처럼 유통’ 응답이 51%에 달함
 - :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결과로 보임
 - : 또한 모든 이념층이 ‘언론 뉴스’에 대한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특히 진보층에서 그 경향성이 높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5호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는 주제로 10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0월 사회지표는 10월 1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